

존 오스왈트 박사, 출애굽기, 세션 5, 출애굽기 9-10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출애굽기에 대해 가르치는 Dr. John Oswalt입니다. 5회기, 출애굽기 9-10장입니다.

주님, 당신의 세계의 무한한 다양성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눈의 아름다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맑은 공기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그리 즐겁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폭풍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올 때, 그들이 당신의 임재와 보살핌을 다시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종류의 폭풍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구속될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삶에서 당신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걷는 곳이 평화와 건강, 온전함의 중심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 우리의 공부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아 세상에서 당신의 왕국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십시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는 오늘 저녁 9장과 10장, 역병 5부터 9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연구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역병은 신들을 겨냥합니다.

우리는 나일강에서 시작하여 양서류와 곤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동물과 식물 사이에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경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이집트인들은 재생산 능력, 즉 자신을 재생산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동물인 황소, 숫양, 숫염소를 숭배하여 그들의 이미지를 그대로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죽었고, 해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숭배해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재앙에서 9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자연적 사건과 기적을 구별하는 세 가지 요소를 찾아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기 이 재앙에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보십니까? 기적의 증거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타이밍,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말했듯이, 강 아래로 흘러내린 과잉의 황토 물로 인해 나일강이 붉게 변했다는 것을 몇 번이나 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그랬고, 모세가 지팡이를 강 건너편에 놓았을 때 그 붉은 물의 과잉이 바로 그곳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예측된 순간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괜찮은.

또 뭐야? 구별. 예. 그것은 모든 곳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렬함.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어떻게'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결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높이거나 늦추거나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CS Lewis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기적은 자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는 이런 종류의 기적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파라오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그거 어려웠어.

예. 그렇다면 12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2주 전에는 이런 일들이 조합되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피아트가 '나는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파라오가 자신에 대해 어떤 권위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곳에 파라오를 데려온 것은 바로의 전 생애의 총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완전히 완고한 곳으로 데려가서 성경이 단순히 강조하고 싶은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 파라오가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이 행성의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발적입니다.

오직 하나님, 곧 '나'만이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보통이라면 이 사람들을 놓아주어 기뻐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의로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6절에 있는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축이 죽었습니까? 관찮은.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까? 사람 과 짐승, 동물.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다시 한 번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마지막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종류의 동물이 고센을 제외하고는 한 종류의 동물도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든 항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당신은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기적은 그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 연구를 다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앞서 여러 번 말했듯이, 이것이 성경의 독특성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대를 초월한, 장소를 초월한 제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9세 미만, 8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마술사들은 자기들과 이집트인들 모두에게 종기가 생겼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술사와 모세, 아론의 관계는 어떤 세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좋아요.

그들은 그것을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두 개는 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명시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편에 있었어요. 그게 그쪽에 있었어.

이것에. 마술사들도 종기가 났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일찍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서로 떨어져 서서 '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 아뇨,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술과 신에 관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괜찮은. 괜찮은.

하나님은 마법을 허락하시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그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아마도 100년 전에 우리가 '아,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의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에는 없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착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힘이 그분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보여주신 정확한 것 중 하나입니다.

악마의 세계는 그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들이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닥치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순종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재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은 무엇이든 죽음을 가져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통제권을 갖고 계시며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앙과 기적 사이에는 아름다운 거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는 출애굽기가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한 것처럼 표징의 언어를 사용하여 매우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법의 힘은 실제적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날 아침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Ammon Ra 황소가 있습니다.

암몬 라(Ammon Ra)는 태양신이다. 그리고 암몬라의 살아있는 형상인 신성한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미라로 만들어졌고, 황소의 아들은 암몬 라의 새로운 형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Ammon Ra 황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많지 않지만 암몬 라(Ammon Ra) 황소는 확실히 많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제들은 발가벗은 채 신을 섬겼습니다. 몸의 털은 모두 깎았습니다. 이것의 일부는 청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 암몬 라에게 아침 건초 더미를 가져오러 왔을 때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오, 오, 대왕이시여, 이런 식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일종의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암몬 라(Ammon Ra), 당신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황소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겁에 질린 31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Ammon Ra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암몬 라(Ammon Ra)는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하십니다. 14절 13절부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경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는 내 모든 재앙을 네게 보내리라. 어머. 그는 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리들과 당신의 백성을 상대로. 왜? 그래서 그게 뭐야? 너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이 no 진술들을 살펴보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흥미로운 진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내용은 바로 5장 2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여호와를 하나도 알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 너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6장 7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될까요? 당신은 무엇을 알 것인가? 그래요, 나는 여호와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했듯이, '나는 주님이다'를 읽을 때 조금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즉시 주권을 생각하고 그것을 거기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요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주에서 자존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아, 계속하자.

다음은 7장 5절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라고 말 하나요? 좋아요. 그건 같은거야.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알고 싶습니다 - 나의 성격.

좋아요, 717번으로 가서 내가 야훼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처음 세 개는 모두 이 근본적인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말했듯이 여기서 단지 그의 레이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레이블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니,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성격, 나의 성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저 사람은 뭐라고 말 하나요?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822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땅에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신이다. 나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신일지도 모르지만 914년까지는 이집트의 신이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 이집트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서 다루어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는 온 땅의 하나님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시대적 맥락에서 볼 때 매우 놀라운 진술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 민족마다 고유의 신이 있어서 서로 겨루기도 하고 씨름을 하기도 하고, 어느 쪽이 다른 쪽을 잠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모든 곳과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진술이다.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히브리인들이 이 이상한 생각을 어디서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는 히브리인들이 종교적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글썄, 히브리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종교적

천재였습니까? 종교 천재들이라고 하던데. 우리는 종교적인 무감각한 두개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 대한 이러한 이해 속으로 끌고 가서 발로 차고 비명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하지만 그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성경학문의 관점에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급진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포로로 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자물쇠, 재고, 통 등 이 모든 것을 꿈꿨다고 들었습니다.

우와. 나는 존 웨슬리의 말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엇이든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이 사람을 법정에서 가둘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설명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9장에 하나, 10장에 또 하나,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다루었습니다.

동물의 신. 이제 우리는 식물의 신들에게 다가갑니다. 위대한 신 오시리스는 미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는 녹색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부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식물의 대표자여야 하는데 해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하 세계의 군주입니다.

그는 당신이 지하 세계에 들어갈 때 그가 당신을 안다고 인정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도록 당신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식물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이집트에서는 폭풍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수천 마일 떨어진 사하라 사막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습기가 공기 중으로 올라갈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화창한 날을 보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폭풍에 대한 이 생각은 단지 강우가 아니라 끔찍한 폭풍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정말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박으로 시작합니다.

15절은 하나님과 재앙의 목적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5, 16. 그는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었더라면 소년이 말한 대로 단번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하지 않았습니까? 16절에 따르면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려는 목적은 무엇이며, 또 무엇입니까? 거기에 복합주어가 있음을 주목하세요. 내 힘과 내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내가 그 이름에 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름은 그의 레이블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그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파라오, 당신은 왜 존재하는가? 네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네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너로 말미암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6절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때문에 또는 우리 없이도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결정하나요? 그렇다고 해보자.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선포되는지는 우리가 그와 함께 기꺼이 연합하여 주여, 저를 통해 그렇게 하소서 하고 말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통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예입니다.

당신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라기서 4장에 관해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해가 떠서 그루터기에서 마지막 수분까지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루터기에게 일출은 끔찍한 일입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마지막 약간의 수분이라도 그 끔찍한 태양이 그것을 바로 빨아들이고 그루터기의 죽음을 봉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과 의의 해가 그의 길에서 치유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예, 같은 태양입니다. 더럽고 더러운 낡은 붓대를 떼어내고 상처를 드러내세요. 태양에게,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생명을 빨아들이는 바로 그 태양이 그 상처에서 고름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누구세요? 우리는 지푸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긴 부상자들입니까? 같은 태양, 태양의 차이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한 무리에게는 죽음이고 다른 무리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야, 네가 원하면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과 내 능력이 너로 말미암아 전파되리라. 그리고 당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기꺼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응, 응, 아주 확실히, 아주 확실히, 아주 확실히.

그리고 또한, 죄의 극악함을 보여주시는 분도 바로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내가 특정 길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 물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 생각엔, 네, 우리가 곧 여기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문제의 일부는 다시 말하지만 신들 사이의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모든 백성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이 다른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와 바로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로가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구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예.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신을 숭배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응, 응.

왜냐하면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을 때 그것이 고쳐졌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고쳐졌습니다. 나는 내 길을 원한다. 나는 내 길을 원한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인간이 나를 제거 가능한 물체로 만들도록 강요할
때 당신이 말하곤 했던 것과 같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 중 하나는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로마 디자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바울은 육체의 능력에 관해 이 말을 인용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내 생각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매우 복잡하고
뜨거운 주제입니다. 제가 읽은 대로, 특히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매우 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그는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구속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풀이 가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답은 '예'입니다. 그는 확실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교의 나무는 잘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이 줄기에 접붙임을 받았느니라. 이제, 죄 가운데 살면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면 당신도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끝까지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원래의 것에 접붙이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은혜로만 구원을 거부하고 선행을 통해 구원받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세 장의 기본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순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장들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멸망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오늘날 존 칼빈과 그의 많은 추종자들은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맥락에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자.

19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는 은혜롭습니다. 우박이 올 것이다.

글쎄요, 그 사람도 사람을 좋아해요. 우박은 모든 사람과 아직 들어오지 않고 들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오, 맏소사, 난 당신이 그들 모두가 죽기를 바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아니.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우회하여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이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과 그들 중 일부, 즉 여호와와 말씀에 두려워하는 관리들이 급히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판에 남겨 두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파라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보니 믿는 말씀과 그 근거로 행하는 말씀이 두려워하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가 말한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 나는 단지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 당신은 그를 믿을 것입니까? 내 말을 믿을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어, 당신이 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리 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으로 그들을 데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 신들을 숭배할 것입니까? 아니면 야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것인가? 좋아요.

27-35절. 바로의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는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이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가 그를 야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뭐야? 그는 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흥미 롭군.

내가 단지 틀렸다거나 착각했다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제 아담과 이브가 판단을 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기도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는 막 자리에서 나왔다.

무엇? 그들은 판결 실패에 대해 유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 즉 죄라고 불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내가 나쁜, 형편없는 가치 판단을 내렸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력적입니다.

아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와. 우와.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34절에서 그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이 틀렸고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면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응. 내 생각에 우리는 때로 성경에 나오는 유머 중 일부를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28절을 좋아합니다. 바로는 우리에게 천둥과 우박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응.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30절을 주목해 보세요.

다음 구절에서 입증되는 것처럼, 모세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유일한 답이 성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쩌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그가 그들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응. 응.

예. 어,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자.

Mm. 응. 응.

응. 그리고 나는 28절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다.

따라서 결과를 제거하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본 적이 있다.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없애기 위해 고백해야 한다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결과라면, 좋아요, 그를 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난 그냥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을 뿐이야. 그건 '그래, 내가 틀렸어'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과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음, 흥미롭네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의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나는 손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유일한 이유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그곳에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그는 종종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만일, 만약, 파라오가 원하지 않았던 대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간다면 말입니다.

내가 다섯 번째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때때로 이것은 여우 구멍 종교라고 불립니다. 주님, 저를 이 혼란스러운 곳에서 구해 주시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목회 입문에 상당한 급증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저를 여기서 꺼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반드시 매우 훌륭한 설교자였는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나는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내가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1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절에는 또 다른 no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을 학대한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여 그들 가운데서 표징을 행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표시는 내가 바로 나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을 사랑했으며 교회에 다녔지만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때문에 더 가난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셔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성경은 또다시 자녀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말할 것이 있고 당신이 아는 것을 아이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야훼입니다.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에 대해 암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했지만, 3절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바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부심, 자부심.

응.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랑자였던 우리 아들 앤드루는 10살 때 이 기독교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로부터 또 18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그는 Karen과 통화를 하다가 아빠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입으세요.

둘 다 커져 있나요? 예. 수요일 밤에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었고, 계속해서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었고,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고, 그것은 당신의 삶이고 당신은 나를 통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리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의 유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와 나는 그가 16살이었을 때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내가 당신처럼 되기를 바라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그는 당신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는 오키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이다. 그리고 신은 그것을 볼 때마다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바로는 그렇게 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모세가 인식한 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파라오님, 당신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이 기꺼이, 기꺼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 말은, 그의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이 신이라는 말을 듣고 신처럼 대우 받았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턱수염을 기른 반쪽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우리 문화에서 과장된 자존감이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까? 아마도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공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통제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 그분의 축복을 원합니다.

응. 우리는 어떤 것들을 흥정합니까? 지옥, 우리 아이들, 돈, 돈,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하느님.

하지만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응. 응. 응.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이만큼 줄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 맵소사, 당신은 나를 위해 뭔가를 남겨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는 왜? 21절에 보면, 메뚜기, 우박이 보리와 아마를 받았으나 밀과 철자는 아직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박은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옵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중으로 죽었습니다.

메뚜기가 먹지 않은 것과 우박이 내리치지 않은 것을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종의 판테온 위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역병을 통해 꾸준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마더 나일(Mother Nile)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서류, 벌레, 동물, 식물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침내 태양에 도달했습니다.

암몬 레이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Ammon Ray에 풀 체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태양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야훼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경고를 받았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도전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공포를 고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왜 그들이 그 이유를 알 만큼 충분히 겪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 앞에서 물러나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내 얼굴을 보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당신 말씀대로 모세가 대답하되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11장 11절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나는 그것을 수년 전에 들었고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베네딕트 아놀드는 16세의 필립스 앤도버 아카데미 학생이었고 그곳에서 뚜렷한 부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아놀드는 무겁고 무거운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두시면 제가 다시는 당신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애 말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을 지켰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주님, 그 때가 바로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언제 어디서나.

네, 주님.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임이 입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려질 정도로 열정적이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당신을 아는 은혜를 얻게 되도록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도와 줘. 당신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려는 이기적인 강박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서 세상이 그 사람의 삶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출애굽기에 대해 가르치는 Dr. John Oswalt입니다. 5회기, 출애굽기 9-10장입니다.